

웰니스 시대, 전세계가 주목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생태수도 순천에서 4월 1일부터 개최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웰니스 시대를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2013년에 이어 10년 만에 박람회를 다시 개최하면서 그동안 국내에서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왔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은 "미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 세계에 보여주

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혀왔다.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은 이 같은 박람회의 의미와 방향을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D-50프레스테이'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취재진 70여 명이 참석해 국내외 방송 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2023정원박람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치러지는 국내 최장기 국제 행사로, 현재 각계각층으로부터 입장권 구매와 기부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챔버리대회 참가를 위해 들어오는 독일 학생 2천여 명과 태국, 베트남 국민 6천여 명이 이미 박람회 입장을 예약해 놓을 정도다.

이번 박람회를 맞아 순천시는 도심 곳곳을 이 시대 건강 트렌드인 어싱(맨발 걷기)길로 조성해 건강과 행복을 대표하는 치유의 도시로 만들었다. 또한 도심 속 저류지를 정원으로 바꿔낸 '오천그린광장'과 차만 다니던 아스팔트 도로를 잔디길로 탈바꿈 시킨 '그린아일랜드

'를 개막 전 전격 공개해 새로운 관광 문화의 선도 모델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원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내는 '가든스테이'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내놓는다. 국가정원 내 35동의 숙박동을 꾸며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를 활용해 고급 만찬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원 안에서 즐기는 힐링 프로그램까지 준비하고 있어 최상의 웰니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호기자

구례, 2023 드림스타트 꿈 프로그램 추진

구례군은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을 위한 꿈 프로그램을 2월부터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드림스타트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면서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에서는 130여 명의 만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11종의 필수 서비스와 30여 종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시행한다.

2월에는 가족 내 의사소통과 관계 회복 및 갈등 해결을 위한 가족 상담과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성을 증진하기 위한 공감 이해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 아동의 정서적 갈등 및 심리적인 증상 완화를 위한 미술 심리 상담을 하고 가족의 소통과 화합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가족 캠프 및 가족사진, 지역 내 후원기관과 협조해 초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증

명사진을 제공한다.

아동들의 수준별 기초학습 학습지 및 특기·적성학원 연계한 기초학력 향상 및 면역력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본 성장 발달 체크와 더불어 예방접종, 깨끗한 가정환경을 위한 소독 방역용품 지원, 지역 자원을 활용한 래프팅 체험활동도 병행한다.

이외에도 부모의 양육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 방법 및 소화기 사용 방법, 응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 교육과 안전교육, 아동 권리교육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자원 연계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 아동들에게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심전식기자

여수, 자전거보험 가입 완료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시민과 관광객이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기간은 내년 2월 6일까지로 1년간이다.

시는 ▲여수시민 대상인 '여수시민 자전거보험'과 ▲여수관광 이용 대상인 '여수시 공영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먼저 '여수시민 자전거 보험'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사망 및 후유장애 2천5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 20~6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이 지급된다.

보험 적용은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동 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 이동장치도 포함되나, 업체 영업을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시 공영자전거 보험'은 '여수랑' 이용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망 및 후유장애 3천만 원 한도 ▲배상책임 사고 당 1억 원 한도 등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올해도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며 "더불어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영자전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장기호기자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서명운동 5만 명 목표, 7만 명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가 최근 광양역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서영배 시의회 의장, 김진환 민간추진위원장을 비롯한 공동부위원장 12명, 시의회 의원, 고종석 광양역장, 260명의 시민이 함께 자리했다. /광양시 제공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서명 달성

광양시는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서명운동 5만 명 목표, 7만 명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최근 광양역에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공동협의회장인 정인화 광양시장과 서영배 시의회 의장, 김진환 민간추진위원장을 비롯한 공동부위원장 12명, 시의회 의원, 고종석 광양역장, 새마을금고

김재숙 이사장, KTX-이음 열차 모델(EMU-260)을 상징하는 260명의 시민이 함께 자리했다.

정인화 시장은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를 주춧돌 삼아, 경제·관광·산업의 복합 중심지로 도약하는 광양의 새로운 배년대계를 열겠다는 말로 시의 미래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다.

행사는 시민들이 한자 한자 눌러

써 서명한 7만 명의 서명서 전달에 이어 공동협의회장과 민간추진위원장이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건의문'에 서명한 후 15만 시민의 염원을 담은 친환경 풍선을 날리는 퍼포먼스로 성황리에 끝났다.

광양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여 동안 KTX-이음 광양역 정차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장기호기자

곡성, 적극 민원서비스로 각종 평가 쾌거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기관인 '나'등급으로 선정됐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591개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전정보,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정보공개 운영 전반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이 전체적으로 평가된다.

곡성군은 사전정보 충실성, 원문공개율, 청구처리 지연 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평가기관

평균 점수 82.69보다 높은 92.5점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 1년간 민원서비스에 대한 3개 분야, 15개 항목, 19개 지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5개 등급(가, 나, 다, 라, 마)으로 평가됐다.

곡성군은 평가기관 평균점수 70.45점보다 높은 점수인 76.97점을 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인 '나'등급으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민원제도 운영 개선, 고충민원처리, 민원만족도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민원 수요를 분석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을 발굴해 더욱 만족스러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일규기자

황금사과

청정 옐로우시티 장성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농산물, 건강한 밥상의 시작입니다

장성호 수변길 옐로우시티 장성군